



말씀

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두가이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렸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리사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물려왔습니다. 뭔가 자기들은 ‘당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듯 한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그들의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율법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그들은 모세의 율법 중 248개의 행령(行令)과 365개의 금령(禁令), 모두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248의 행령과 365개의 금령,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 우리가 보기에도 대답하기 곤란한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고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 계명에 버금가는 두 번째 계명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613개의 율법 계명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지닌 서로 다른 계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과 이에 버금가는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어느 계명도 완벽하게 준수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계명이라도 의미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성취했고 또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순서(first and second)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시(synchronize)에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의지가 굳건해지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 확증된다.” 이렇듯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랑’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을 나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승남(스테판노) 신부
필승(육군 30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탈출 22,20-26
회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2 특 시 1테살 1,5ㄴ-10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마태 22,34-40
영 성 제 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진리를 살다

주님의 기도

우리는 흔히 주님의 기도 하면 으레 모든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기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때만 해도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보배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정회원들, 곧 세례 받은 교인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었으며, 비신자들, 심지어는 예비 신자들에게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니다.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세례 교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의 기도는 또 다른 이름인 ‘신도들의 기도’라는 명칭도 가졌습니니다.

그 시대 신자들이 얼마나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쳤는가는 동서방을 막론하고 교회의 전례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인도문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방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기 직전에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인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한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삼가 아뢰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방 교회인 로마 교회는 오늘날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전통적인 인도문인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인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자리도 동서방 교회 공히 성찬 전례와 관련을 맺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데 합당한 준비의 기도로 바쳤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옛 교회에서는 이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늘 삼가고 두려워하는

영상채 예식

마음을 다듬곤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유감스럽습니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그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 중의 기도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1. 호칭

먼저 주님의 기도 첫 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인데 신약성서학자 J. 예레미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발설하신 첫 마디는 ‘아빠’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와 의미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주의 기도문」, 요아킴 예레미아스, 분도출판사, 1973, 33-39)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예언자들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의 설교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니다. 아마도 자식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는 용서와 자비로 답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와 자비로 품어 주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언서들은 아버지 표상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랍어 ‘아빠! (Abba!)’라는 호칭으로 아버지를 부르시고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겐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를 알려주는 마르코 복음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14,36)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복 음 묵 상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상화이야기

최후의 만찬



인드레이 델 카스티뇨(1421-1457)
 1445-1450년 작, 프레스코화 453 X 975 cm
 상 이폴로니아 수녀원, 이탈리아 피렌체

본 프레스코화는 봉쇄수녀원 식당에 그려진 그림으로, 어떠한 방문객도 허가하지 않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 탓에, 동시대 화가들은 물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본 그림은 외부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는 석고로 한 겹 덧발라 있었고, 최근에야 빛을 볼 수 있었기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다.

화가는 천장과 타일의 원근법적 요소 및 건축적 요소를 사용하여, 마치 건물의 한 벽면 안에 새로운 공간에서 최후의 만찬이 거행되는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테이블 아래에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만 테이블 바깥쪽에 앉아 있다. 이 장면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 있는 모습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따라, 예수님께 품에 기대어 앉아 있고, 그 옆에 안드레아 사도는 칼을 쥐고 있으며, 후에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하게 될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기도를 하듯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신할 이가 누구인지 요한 사도에게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하고 있다.(요한 13,24) 제자들은 각기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고 있다.

김은혜(갤러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상무대 이종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열쇠(5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29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